

국내 최대 양림동 선교사묘역 '라이다' 실측 재현

광주시는 20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VX스튜디오에서 인공지능·문화기술로 문화유산을 디지털 자료로 전산화(아카이빙)하는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 구축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성과 공유회에는 '아시아 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 사업에 참여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비롯해 ㈜위프코, ㈜피씨엔, ㈜위치스, ㈜엔투테크, 국제개발협력실현연구원 등 지역 문화유산 관계 기관과 콘텐츠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주의 미래 자산이 될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올해 양림동 일원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세계유산에 대한 디지털 자료 전산화 데이터를 활용한 시범 콘텐츠가 제작됐다.

광주 양림동은 세계 유일의 선교사 전용 집단 묘역으로 지역 성지 순례 1번지로 꼽히는 곳이다.

양림동 디지털 자료 전산화는 기독교유산 등 근대문화유산이 산재한 양림동을 기존 단일 문화유산에 대한 점 단위 3D 스캔에서 확장해 라이다(LiDAR)를 활용, 먼 단위 디지털 자료 전산화

市·전남대·전자기술원 협업 '전승 문화 콘텐츠' 구축 시범콘텐츠 GCC 전시...문화유산 디지털자료 전산화

를 추진했다. 기존 3D 스캔은 단일건물 위주로 스캔해 전산화 자료의 활용이 한정적이었으나 라이다 측량 자료는 건물과 함께 건축적 맥락 및 자연·생태 정보 등 주변 경관 정보를 보다 넓게 취득할 수 있어 문화유산 보존·활용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크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레기스탄 광장과 호라즘 무용에 대한 디지털 자료 전산화를 진행했다.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과 중앙아시아인들의 문화 가치를 확보한 이 자료는 앞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고려인마을 등과 협력해 전시·교육 콘텐츠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 문화유산인 중심

사, 양림동 근대문화유산, 호남검무 디지털 자료 전산화를 기반으로 제작한 게임·미디어아트·뮤직비디오 시범콘텐츠를 22일까지 4일 동안 광주실감콘텐츠큐브 1층에서 선보인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광주의 인공지능, 문화기술을 활용해 문화유산을 디지털 자료 전산화하고 이를 콘텐츠산업으로 확산시키는 광주형 문화유산 보존·활용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2021년엔 인공지능 문화유산 모

션 캡처 시스템 연구개발, 2022년에는 자료 전산화(아카이빙) 스튜디오 구축 및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했다. 2024-2025년에는 기술 실증과 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

형광일 문화유산자원과장은 "광주는 마한시대부터 현재까지 명실상부 호남의 거점도시로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었으나 최근 급속한 도시화 때문에 많은 문화유산이 사라졌다"며 "광주의 첨단 기술로 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는 방안인 아시아공동체전승문화플랫폼을 통해 광주형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선강기자



20일 오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 마련된 2024년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시범제품실증 현장 방문한 강기정 광주시장이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시 제공>

姜시장, 시민체감형 실증현장 기업 의견 청취

ACC 어린이문화원 창업기업 실증 점검

강기정 광주시장은 20일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시범제품실증 현장을 찾았다.

강 시장은 실증이 이뤄지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어린이문화원을 찾아 시민체감형 실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창업 초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들었다.

광주시는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 더 기업하기 좋은 광

주'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 전체를 실증 시험무대(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있다.

혁신기술 제품을 개발하고도 실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36개사를 지원해 매출액 85억원 달성, 신규 고용 56명, 국내외 판로 확보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시민체감형 제품실증 13개사를 포함해 총 45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는 ▲복합문화공간 안내 스마트로봇 '모션어드바이저' ▲인터랙티브 확장현실(XR) 무인 포토 부스 '이류월드' ▲AI 이용 어린이 교육 및 안내 서비스 '서큘리스' ▲가상현실(VR) 광투투어 체험형 관광게임 '일이옥' ▲현실과 가상요소가 결합된 방탈출 체험 '여행가자' ▲케이팝(K-POP) 팬 네트워킹 스페이스 '최애의나라 티슈오피스' 등 6개 기업이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박선강기자

광주 321명 79억·전남 308명 136억 체납

市·道,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징수 총력

광주·전남지역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공개됐다. 고액·상습 체납 규모는 법인·개인을 포함해 광주 321명 79억원, 전남 308명 136억에 달한다.

20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광주·전남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광주시는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난 3월 지방세 30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5명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212명(법인 90명·개인 122명)이며

체납액은 73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19명(법인 5명·개인 14명)이며 체납액은 6억원이다.

전남도도 이날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36억원 규모다.

전남도는 앞서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공개 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 약 12억원을 징수했으며 납부한 50명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명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7명 중 개인은 10명으로 체납액은 5

6억원, 법인은 110개 44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명단 공개자 38명 중 개인이 31명 8억원, 법인 7개 28억원이다.

공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최고액자는 광양의 한 건설회사로 취득세 등 3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자는 순천의 한 제조업 법인으로 시유재산변상금 등 11억 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자는 순천 거주자로 지방소득세 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자는 여수 거주자로 지적재산조소징금 1억원을 체납했다.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강제 등 체납처분과 출금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선강·양시원기자

道,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총력

용역 최종보고회...원료소재 생산 고도화 등 30개 과제 선정

전남도는 20일 도청에서 이차전지 관련 시·군,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원료소재 생산기술 고도화 등 30개 세부 이행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추진 전략 과제는 ▲원료소재 생산기술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기업

투자 촉진 ▲규제 특례 ▲네트워크 강화 ▲원소통 지원 체계 구축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총 7개다. 보고회에선 광양만권 이차전지 산업 현황 분석을 통한 비전·목표 제시 등도 진행됐다.

전남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출입 항만인 광양항을 중심으로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원료 생산 기업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 해결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전남도는 니켈, 리튬 등 이차전지 핵심 광물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직접 생산하는 국내 유일 지역이다.

전남도는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 국회, 정부를 지속 설득하고 있다. 도, 시·군, 관련 기관과 특화단지 지정 사전 준비를 위한 실무 전담팀(TF)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국가첨단전략기술 추가 지정에 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시원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화정동757-34 힐스테이트1단지(763세대)정문앞 시교육청정문점 대로변 대지275㎡ 3층건물
급매11억7,000(조정가)

광주역앞(중흥동704-13,14) 6차선 대로변 상업지역 대지591㎡(평수추가가능)
2층건물 음식점, 커피카페, 전시장등 최적
급매3.3당1,200만원(조정가)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2차선도로점 일반공업지역 9,900㎡(면적추가또는 분할도가능) 급급매30억
***국내최대동굴관광지(예정)입구 투자가치도 최고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인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